



◇1900년대 초 중흥사 전경. 현재 중흥사 터는 북한산성 안에 있는 폐사지 가운데 유일하게 경기도 기념물 제136호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나머지 폐사지들은 대부분 멸실 위기에 놓여있다.

북한산 향림사터 찾았다

조계종 '북한산 불교유적 보고서'

불교문화재 발굴단 첫 성과 사찰 21곳 문헌기록 확인

한국불교의 얼이 서린 북한산 일대의 불교유적이 멸실 위기에 놓인 것으로 드러나 특단의 보호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고문헌에 따르면 21개 호국사찰들이 북한산성 안에 있었는데, 현재 국녕사 진관사 승가사 문수사 상운사 원효암 등 6개 사찰을 제외한 나머지 사찰들은 방치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사실은 조계종 불교문화재 조사발굴단(단장 일철)이 9일 발간한 <북한산의 불교유적>에서 밝혀졌다.

조사발굴단은 지난해 2월 1일부터 <신중동국여지승람> <북한지>에 수록된 21개 사찰의 정밀실측·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이 보고서를 펴냈다. 1600여 년의 불교사를 간직한 채 멸실되어가는 북한산의 불교유적들을 현실로 끌어낸 것이다. 북한산 불교유적에 대한 최초의 자료집이며, 조계종의 자체 지표조사와 발굴 능력을 검증하는 첫 사업이라는 점에서도 이번 조사의 의미는 특별하다.

북한산에 소재한 사찰들을 가장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산봉 스님의 <북한지>에 따르면, 북한산성이 축조되면서 산성을 지키기 위해 21개 사찰들이 중수·건립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제에 의해 고의적인 방화가 저질러졌고 6·25와 경제개발기를 거치는 동안 대부분의 불교유적이 파괴됐으며, 자료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형편이다.

이번 조사 결과 얻은 가장 큰 성과는 고지도와 문헌상 으르만 전해온 고려시대 사찰 향림사 터를 확인한 것. 정재훈(전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발굴단장)은 "북한산 향림사 터에 대해 2천여 평의 절터에서 고려시대 주석석과 탑부재, 외편 등을 발견했다"며 "이곳이 향림사터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향림사는 11세기 거란족 침입 때 태조 왕건의 재궁(梓宮:임금의 관)을 옮겨 모셨던 행궁으로, 고려 초기의 가람 양식과 왕실건축의 전모를 밝혀줄 중



◇조계종 불교문화재 조사발굴단이 새롭게 발견한 향림사터. 깎아낸 듯한 축대의 모습에서 고려시대사찰 양식을 읽을 수 있다.

요한 유적이다.

또한 상운사 삼성각에 봉안된 석불좌상의 조성연대가 1497년임을 밝혀냈으며 북한산성 축조와 더불어 조성된 불상 3구도 발견했다. 이외에도 봉성암과 용암사터의 중간지점 계곡에서 후기 구석기 유물로 추정되는 석기(규개)를 수습했다. 지금까지 서울 인근에서 구석기 시대로 추정되는 유물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본격적인 발굴이 이뤄져 다량의 구석기 유적이 출토될 경우 선사 시대 연구에 큰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 발굴단장 일철(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스님은 "이번 조사는 조계종이 주관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뜻이 깊다"고 전제한 뒤 "성곽 복원에만 매달린 것이 아니라 축성과 방비의 주력이었던 승군들의 절터와 고려시대 명찰이었던 향림사, 삼천사 터를 발굴·복원에 교육현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북한산의 불교유적>에는 정재훈(전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조사발굴단장), 김창균(문화재청 상임전문위원), 정병삼(숙명여대 한국사학과 교수)씨 등의 논문이 수록돼 있어, 학술서로서의 면모도 갖추고 있다. 이들 논문은 <북한지>에 누락되었거나 이 책 이후에 찬술된 비문·기문·시문 등을 새로히 밝혀 내어, 북한산 불교유적의 면모를 꼼꼼히 살피게 하는 좋은 돌보기가 되고 있다. 불교문화재 조사발굴단은 서울시와 문화재청의 협조를 얻어 북한산 일대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발굴과 보존대책 수립에 나설 계획이며, 오는 3월부터 강화도 지역 40여 곳의 절터를 대상으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종욱 기자

뮤지컬 '오! 부처님' 4월 대구서 만난다

무용·합창단 등 60여명 연습중

대구지역 첫 창작 불교 뮤지컬 '오! 부처님'이 4월 15일~17일 대구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오! 부처님'은 출가에서부터 성도에 이르는 부처님의 구도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대구불교문화예술원이 주최하는 이번 뮤지컬은 중견 불자 연극인 정광진씨가 제작 및 극작을 맡고, 한국불교음악협회 이사 이달철씨(세종미디어 대표)가 음악을 담당한다. 연출은 지난해 부처님 오신날 봉축 연극 '그것은 묵탁 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극본 이만희)'를 연출한 박현순씨(극단HMC 대표)가 맡았다. 박씨는 이 연극으로 지난해

대구연극제 최우수 연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억여원의 제작비가 투입될 뮤지컬 '오! 부처님'은 총 6막 12장으로 구성됐다. 1막은 사문유관과 유성출가상을, 2막은 설산 수도상을, 3막과 4막은 타화천궁에 살고 있는 마왕 파승과 세 딸이 신타타타 태자를 유혹하는 장면을 담는다. 5막은 수하왕 마상을, 6막은 녹원전법상을 그려내게 된다.

신타타타 태자역은 정광진씨가 맡았으며, 정광진씨는 바리톤 이단열씨, 데바다타역은 테너 허철영씨가 연기한다. 이밖에 성석배, 최주환, 박상희씨 등 지역 연극인 20여명과 지피(ZIPPY) 무용단, 합창단 등 총 60여명이 무대에 설 예정이다. 음악, 무용, 연극, 조명 등 각 분야를 망라해 선보일 이번 작품에서는 랩과 테크노 등 최신 유행음악도 도입해 극적인 재미를 더할 계획이다.

연출을 맡은 박씨는 "신타타타 태자 마음 속에 내재돼 있는 중생심과 여래심간의 갈등에 초점을 맞춰, 고뇌하는 현대인들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뮤지컬 본래의 형식에 충실하여 예술적 감흥과 대중적인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작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윤호 기자



◇경북 군위군 부계면에 소재한 '군위삼존석굴' (국보 109호) 현재 '제2석굴암'으로 통칭되고 있다.

'군위삼존석굴'로 불러주세요

지역 주민들이 '석굴 이름 찾기'에 나서 화제가 됐다. 문제의 석굴은 바로 국보 제109호로 지정된 군위삼존석굴. 경북 군위군 부계면 남산리에 있는 이 석굴은 1927년 부계면 주민 최두환씨에 의해 최초로 발견된 뒤 1962년 문공부 학술조사를 거쳐 국보로 지정됐다.

그런데 관청 공문, 교통표지판, 관광지도 등에 공식 명칭인 '군위삼존석굴'보다 '제2석굴암'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제2석굴암이란 명칭은 조성시기가 뒤떨어진 경주 석굴암보다 문화재적 가치가 떨어지거나, 경주 석굴암의 아류로 보이게하기 때문이다.

군위삼존석굴은 신라 소지왕 15년(서기 493년) 국달화상이 경주 석굴암보다 280여년 앞서 창건한 석굴로, 석굴암과 달리 천연암벽을 뚫고 불상을 안치한 본격적인 석굴이란 점에서 한국불교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경북 군위군 일대에 설치된 교통표지판들은 모두 한글로 '제2석굴암', 영문으로는 '2nd Sokkuram'이라고 표기돼 있다.

이에 대해 군위군 관계자는 "군위삼존석굴이란 공식명칭을 공문서에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문화재청과 협의해 '팔공산석굴암' 등과 같이 군위삼존석굴의 위상을 높일 새 이름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능인스님 찬불가요 1집

능인스님(서울 백운사)의 '찬불가요 1집'이 나왔다.

이 음반에는 출가수행자의 인간적 번민을 노래로 담은 '산사의 낙엽'을 비롯 스님이 직접 작사 작곡한 '나무관세음보살' 등 10곡이 담겨있다. 스님은 찬불가요와 더불어 '아침예불·천수경' 독송 음반도 함께 발매했다.

스님은 "출가해 공부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체험들을 음악으로 표현하기 위해 찬불가요를 제작했다"면서 "민요풍의 대중적 찬불가요를 통해 불교포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 단신

전주 박물관 '사녀사·홍덕사 유보전'

국립전주박물관이 15일~3월 12일까지 고려시대 금속공예의 우수성을 조명하는 '청주 사녀사·홍덕사 유보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93년 청주 무심천변에서 다량으로 발견된 사녀사의 금속공예품과 현존 세계 최고 금속활자인 지지심체요절을 찍어낸 홍덕사에서 출토된 유물 등 1백여점씩을 한자리에 모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사녀사 유물은 범용구, 공양구, 생활용구 등으로 구분해 전시되며, 유물의 보존과학적 처리, 중요유물의 해설과 사진이 담긴 전시보조 패널도 설치했다. 홍덕사지 유물은 다량의 기와와 청동법종, 금사자, 청동용두장식, 청동발 등 금속공예품이 주종을 이룬다. (0652)223-5652

자료로 보는 문화상품 패배

'문화의 영역이 경제적 영역과 결합함으로써 산업적 생산 및 소비의 대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분야'

문화관광부는 최근 펴낸 <자료로 보는 문화상품>에서 문화상품을 이렇게 정의했다. 이 책은 지난해 문광부에 신설된 문화상품과에서 실시한 문화상품 실태조사 결과를 수록, 우리나라 문화상품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전망을 이룬다. 우리나라는 문화상품 시장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외국인들이 주요 쇼핑 품목 또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상품보다는 의류, 피혁, 신발, 보석, 화장품, 주류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좋은 산업제품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복, 한글, 김치와 불고기, 불국사와 석굴암, 태권도, 고려인삼, 탈춤, 중요제례악, 설악산 등 한국을 상징하는 문화상품개발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도 문화상품 생산업체와 유통업체 현황, 공예품 활성화에 대한 관련 단체 의견, 공예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세계주요국의 공예산업 통계와 수출입 동향 등을 담고 있다.

불교인터넷TV의 아트갤러리

불교인터넷TV가 사이버공간에서 아트갤러리를 열었다. 10년째 촛불속에 나타나는 부처님을 촬영한 예쁜 이미지와 사진작가 김연옥씨의 사진전을 마련한 것.

아트갤러리 내에는 달마관과 제불부처님관, 불교소품관 등 세 개의 전시관이 별도 조성돼 렌즈에 담긴 신비한 불교의 세계를 보여준다. 달마관에서는 촛불이 탈 때 초의 심지가 변화하는 과정을 순간 포착한 작품과 촛불이 떨어지면서 자연적으로 조성된 불상들의 모습을 담았다. 제불부처님관과 불교소품관에서는 촛불속에 형상화된 불보살과 불교상징물의 이미지를 감상할 수 있다.



2000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요강

- 불 교 학 과
- 법 패 과
- 불 교 미 술 과

교 육 내 용

- 1) 불교학과(정규 및 통신생) : 불교학 및 포교 전반
- 2) 법 패 과 : 상주권공(불교전문석사)
- 3) 불교미술과 : 단청·불화·조각·한국건축사·문화재보호법 등.

응 시 자 격

-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1) 신입생
 - 가)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나)강원 사립과 이상의 수료자
 - 다)태고종단 관부의 추천을 받은 자
 - 2) 2학년 편입생(불교학과만 해당됨)
 - 가)정규대학 졸업자 나)불교교양대학 졸업자

전 영 방 법

필기시험 및 면접(공통), 실기시험(불교미술과)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00년 1월 17일(월) ~ 2월 26일(토)
(평일은 10:00~17:00, 토요일은 12:00까지, 공휴일은 휴업함.)

전 영 일 자

2000년 2월 27일(일) 10:00~17:00

제 출 서 류

- 1)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2)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 3)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 4)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5) 주민등록등본 1부
- 6) 승적증명서 또는 수계증 사본 1부
- 7) 반명명판 사진 6매

전 영 료

₩30,000(불교미술과 ₩40,000)

참 고 사 항

- 가. 승려들의 소양 함양을 위한 내전 및 서예 특강 실시함.
- 나. 본 대학 이수자에게는 태고종단 포교사자격증을 수여하고, 2년과정을 이수한 태고종단 승려에게는 법계(대선)를 품수케 함.
- 다. 기숙사 운영(지방학생 문의 바람)
- 라. 제출서류 가운데 승적증명서나 수계증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은 나머지 서류만 구비하여 제출하면 됨.
- 마. 편입생 응시자는 수학 경력에 따라 편입토록 함.
- 바. 통신생은 월 1회(1박 2일)의 출석교육을 이수해야 함.

원 서 교 부 및 접 수 처

- 가. 본 대학 교학처(☎ 763-0229, 8536)
- 나. 태고종 서울중앙부(☎ 745-2030~2)
- 다. 태고종단 각 교구중앙부
- 라. 경서원(☎ 733-3346)



동방불교대학

☎ 136-022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92-1
☎ 763-0229, 8536. FAX 764-5883